

베트남에 3도3군 알린다

3도3군 관광협의회, 무주군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3도3군 관광협의회(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금산군 이하 협의회)가 본격적인 베트남 공략에 나선다.

22일 무주군에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이하 한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3도3군의 관광 국제화와 한인회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을 통해 △협의회는 한인회 교민 2세를 대상으로 전통과 문화 체험을 지원키로 했으며 △한인회는 베트남 현지 발행 교민지에 3도3군의 관광 정보와 주요 행사 소식을 게재하는 등 지속 홍보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3도3군 관광협의회는 22일 무주군에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3도3군의 관광 국제화와 한인회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민 2세, 베트남 현지 언론사 기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베트남가족협회 이진 부회장은 “말로만 듣던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 태권도 성지 무주와 더불어 3도3군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2세들이 3도3군을 통해 한국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고 베트남에도 3도3군을 실감 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약에 앞서 21일 입국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일행은 충북 영동군을 찾아 와인빌리지를 관람했으며 무주역

유산리조트에서 숙박한 후, 22일까지 무주에서 눈썰매 체험, 태권도원 공연 등을 즐겼다.

같은 날 금산 풍물 인삼시장 견학한 이들은 서울로 이동, 24일까지 서울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2세들이 3도3군을 통해 한국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고 베트남에도 3도3군을 실감 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금산 풍물 인삼시장 견학한 이들은 서울로 이동, 24일까지 서울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2세들이 3도3군을 통해 한국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고 베트남에도 3도3군을 실감 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약에 앞서 21일 입국한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일행은 충북 영동군을 찾아 와인빌리지를 관람했으며 무주역

‘장수가야, 대보름을 밝히다’

장수군, 24일 정월대보름 맞아 달집태우기 진행

장수군은 오는 24일 ‘장수가야, 대보름을 밝히다’를 주제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수팔경청년회가 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시가지 풍물 공연 행진과 식전공연,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등으로 구성된 한층 풍성한 대보름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주민 소원지 작성이 군청 앞과 행사장에서 이뤄져 분향사 달집태우기 시 소원을 태우고 함께 소원을 기도할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 시가지 풍물공연행진이 장수성당에서 출발해 터미널, 장수교, 행사장으로 지나며 주민들과 부럼깨물기 등을 함께하며 신명 나는 거리 행진을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 6시 10분부터 의암공원 한우마당에서 시작되는 행사는 식전공연과 풍년기원제, 봉화점화 퍼포먼스, 달집태우기로 이어져 풍물, 전통무용 등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고, 행사 당일에는 현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요원 배치, 화재진압 차량과 의료차량 대기, 일출 시까지 잔불 감시초소 운영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 읍·면별로도 대표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다.(△천천교회 앞 하천, △사곡 중앙공터, △어전리 소공원, △장계시장 앞 천변, △금천마을, △산서터미널 앞 등)

최훈식 군수는 “2024년 정월대보름 행사의 개최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원도 빌고 달집도 태우며 질병도, 근심도 없는 밝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야외결혼식 지원

진안군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진안군 야외결혼식 지원 사업은 미안산 북부 산악초대운 잔디광장 등 진안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진안군 주요 관광지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사전 신청에 따라 웨딩아치, 카펫, 꽃장식 등 결혼식장 설치, 의상·메이크업, 스냅사진 및 야외촬영, 피로연 비용 중 사업 대상자 선택에 따라 250만원의 지원 한도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한 후 SNS 게시물의 업로드를 통해 인증하고 피로연 등 지역에서 결혼비용을 집결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신랑·신부 중 최소 1명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로서 초혼 및 재혼 부부 모두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진안군은 오는 5월까지 1차 사업으로 신혼부부 세 명의 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접수는 4월 말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81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하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반도 동·서 교통망 구축하야”

전북시·군 의장협의회,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제안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들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도시의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지역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이뤄야 하며 전주~무주~김천 철도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22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81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지방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의 발전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중부권 지역의 사통팔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는 충청, 전라, 경상 5개도가 접하는 남부 내륙의 중심지로 이제 한반도 신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장은 철도와 도로가 국가 경제발전의 대동맥이라며 전주~무주

~김천 철도(101.1km, 2조5,496억원)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128.7km 6조110억)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중부권, 동서생활권의 교류 및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호·영남의 물리적, 정서적 장벽을 허물고 융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구·경북의 경제자유구역에 하나로 연결해 불균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입된 거대한 해외자본의 원활한 흐름으로 국가 경제발전 도약의 길이 될 거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무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 교통망 구축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략을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다. 이어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전주~무주~김천간 철도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정기회의 갖고 사업 계획 공유

무주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행정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홍진홍-이하 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을 한 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올해 6개 실무분과 기획사업으로 △다양한 가족 수용 캠페인과 △10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봉사, △잠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문화가 있는 달 10월, △분리수거 인식개선-탄소중립 실천, △통합사례관리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청각장애인 화재 경보 LED 안전등 설치를 비롯해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초등학교 입학 아동 가족사진 촬영, △원스톱 이불 빨래 서비스, △저소득 아동·정



소년 숙육 지원, △사랑 가득 행복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읍면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홍진홍 민간위원장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민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가 고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위원님들의 노력이 협의체 활동을 뒷받침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실현 또한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장수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4년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활동 동아리를 모집한다.

동아리당 최대 2백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전입해 거주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5년(2019년 2월 8일 이후 전입자) 이내인 자로, 동아리는 회원 수 10명~30명 이내로 귀농귀촌인 회원이 최대 30% 이상이어야 한다.

마을공동체에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모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비, 교육재료비, 문화활동비, 식비) 등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활동은 학습·문화·봉사활동으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동아리는 신청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성수면 지사협 정기회의 가져

진안군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지호)는 22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 1월 22일 선출된 당연직 위원인 박정숙 성수면 주민자치회장에 위원장 정달식이 개최됐다. 이어 1분기 역점사업 추진현황과 사랑의 행복 다리 만들기 신청자 내역 보고와 어르신 영양반찬 지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가정 ‘행복뽕뽕’이란 이름으로 2023년 추진이 보류됐던 따뜻한 뽕나눔봉사의 사업 시행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사협은 행복다리를 만들기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공사 자재 견적을 작성하고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로 행복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의 요실금패드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영양반찬 지원사업은 4월부터 매주 1회 고령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30명의 대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